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8. 2. 6.(화) 조간	배포	2018. 2. 5.(월)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3145-8521), 김성현 선임(3145-8522)		

제 목 : '17년 중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분석

– 대포통장 2.6% 감소 반면, 가상통화 악용 등으로 피해액 26.0% 증가

1 개 요

- '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499억원↑) 증가
 -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34.4%↑, 461억원↑)한데 기인
 - '17년 하반기 들어 148억원이 가상통화로 악용
 -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1,137만원)이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 대비 2.3배에 달함
- 반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5,422건으로 은행권의 FDS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6% 감소(1,204건↓)

'17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 분			'16년(A)	'17년(B)	증감(율)(B-A)	
보이스 피싱	대출빙자형	피해액	1,344	1,805	461	(34.4)
		피해건수	37,222	42,248	5,026	(13.5)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액	580	618	38	(6.6)
		피해건수	8,699	7,700	△999	(△11.5)
	합계	피해액	1,924	2,423	499	(26.0)
		피해건수	45,921	49,948	4,027	(8.8)
대포통장		건수	46,626	45,422	△1,204	(△2.6)

2 보이스피싱 현황 및 주요 특징

① 가상통화를 악용하여 피해금 편취

-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악용*

* 가상통화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1일 600만원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지연 인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며, 자금추적이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17.10.10.)* 하였음에도 '17.12월에는 1인에게 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17년 하반기 들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액이 148억원**에 달함

* 보도자료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 은행권 및 농협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조사

- 이는 전년 대비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2.3배임

※ <붙임1>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금 현황

<붙임2> 가상통화를 악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

② 대출빙자형 큰 폭 증가

-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악용,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액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는 등 급증

- 대출빙자형은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 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 '16.9월 이후 금감원에 신고된 전화번호 4,248건 중 약 39%가 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이용

- 금융회사의 실제 영업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한층 정교화·지능화*

* 보도자료,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17.5.17.)",
"가짜 「햇살저축은행」을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17.7.17.)",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지 마세요!('17.12.11.)" 등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 현황

(단위: 억원, 건, 만원/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피해액	1,045	(42.7)	1,344	(69.9)	1,805	(74.5)
피해건수	36,805	(63.8)	37,222	(81.1)	42,248	(84.6)
건당 피해금액	284	-	361	-	427	-

* ()안은 전체 보이스피싱 대비 비중

-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전체 피해자 대비 62.5%, 피해액 대비 66.0% 등 다수를 차지

'17년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건, 억원, %)

구 분	피해자수			피해액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0대 이하	26 (0.1)	14 (0.0)	40 (0.1)	1 (0.0)	0 (0.0)	1 (0.0)
20·30대	5,737 (13.7)	5,325 (12.7)	11,062 (26.5)	209 (11.7)	180 (10.1)	389 (21.8)
40·50대	14,637 (35.0)	11,516 (27.5)	26,153 (62.5)	692 (38.7)	487 (27.3)	1,179 (66.0)
60대 이상	2,966 (7.1)	1,591 (3.8)	4,557 (10.9)	145 (8.1)	71 (4.0)	216 (12.1)
합 계	23,366 (55.9)	18,446 (44.1)	41,812 (100.0)	1,047 (58.6)	739 (41.4)	1,786 (100.0)

* ()안은 전체 보이스피싱 대비 비중이며, 개인사업자 등 법인은 제외

③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젊은 여성이 표적

- 피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 간호사, 비정규직 등 20~30대 젊은 여성이 표적이 되어 건당 피해금(803만원)이 오히려 크게 증가(20.4% ↑)

최근 3년간 정부기관 사칭형 등* 현황

(단위: 억원, 건, 만원/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피해액	1,399	(57.3)	580	(30.1)	618	(25.5)
피해건수	20,890	(36.2)	8,699	(18.9)	7,700	(15.4)
건당 피해금액	670	-	667	-	803	-

* 대출빙자형을 제외한 일체

** ()안은 전체 보이스피싱 대비 비중

- 특히 20~30대 여성의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의 절반 이상(54.4%)이며, 건당 피해금(853만원)은 전체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1.8배에 달함

- 이들은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

* 보도자료 -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17.4.6),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17.11.1.)

'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건, 억원, %)

구 분	피해자수			피해액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0대 이하	2 (0.0)	3 (0.0)	5 (0.1)	0 (0.0)	0 (0.0)	0 (0.0)
20~30대	678 (9.1)	3,764 (50.6)	4,442 (59.7)	52 (8.9)	321 (54.4)	374 (63.3)
40~50대	882 (11.9)	1,191 (16.0)	2,073 (27.9)	48 (8.1)	91 (15.4)	139 (23.5)
60대 이상	595 (8.0)	328 (4.4)	923 (12.4)	48 (8.2)	30 (5.0)	78 (13.2)
합 계	2,157 (29.0)	5,286 (71.0)	7,443 (100.0)	149 (25.2)	442 (74.8)	591 (100.0)

* ()는 전체 대비 비중이며, 개인사업자 등 법인은 제외

4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맞춤형 보이스피싱 시도

- 사기범은 광범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성별·연령대별로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보이스피싱 시도

* '17.9월중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피해자(51명)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했다고 응답

-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사칭형, 40~50대를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납치형** 보이스피싱을 집중적으로 시도

* 구직자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로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 중 20대 남성이 16.1% 차지

** 납치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84.7% 차지

3 대포통장* 현황 및 주요 특징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① 은행권 큰 폭 감소,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증가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에 힘입어 '15년 이후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특히 은행 권역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 감소(2,677건↓, 8.0%↓)

- 다만, 새마을금고(824건↑, 25.9%↑) 및 우체국(413건↑, 15.0%↑) 등 제2금융권에서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 발생

* 한편 급여 이체 등 주거용 통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통장을 양도하는 경향도 발생

최근 3년간 대포통장 발생현황

(단위 : 건, %)

구 분	'15년	'16년(A)	'17년(B)	증감(율)(B-A)	
은행	44,400	33,672	30,995	△2,677	(△8.0)
상호금융	6,815	6,907	7,132	225	(3.3)
새마을금고	3,383	3,176	4,000	824	(25.9)
우체국	2,518	2,759	3,172	413	(15.0)
기타(증권저축은행 등)	183	112	123	11	(9.8)
합 계	57,299	46,626	45,422	△1,204	(△2.6)

② 대포통장 관리는 NH농협은행이 우수

○ 고객 수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음*

* 대형은행의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

(단위 : 건)

은행명	'16년	'17년	증감	은행명	'16년	'17년	증감
KB국민은행	2.78	2.74	0.04↓	우리은행	2.56	1.95	0.61↓
IBK기업은행	3.44	2.41	1.03↓	KEB하나은행	1.46	1.42	0.04↓
신한은행	2.15	2.23	0.08↑	NH농협은행	0.66	0.72	0.06↑

- 타사(평균 3~4인) 대비 모니터링 요원(총 8명)이 많고 모니터링 운영 시간도 길어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

4 향후 대응방안

①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

② 취약계층별 ·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실시

- (20~30대 젊은 여성) 젊은 여성이 자주 찾는 인터넷 포털 및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집중 홍보
- (40~50대 대출수요자) 금융회사로 하요금 대출 취급시 문진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도록 지도

* 대출 상담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16.11월), 대출금 중도상환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되도록 상환방식 단순화('17.12월) 등

③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하여 '17.12.1.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

- (금융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 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에 통보*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18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

- (금감원) 적발된 사칭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④ 제2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감축 독려

-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하요금 대포통장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독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1**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7.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A사	17.5	15.1	4.3	1.0	2.4	2.0	42.3
B사	-	0.5	4.1	8.8	17.7	2.1	33.2
C사	5.1	8.8	0.0	1.3	6.4	6.5	28.2
D사	-	-	-	-	2.0	18.3	20.3
E사	2.7	0.2	0.8	0.2	0.5	0.4	5.0
기타*	1.8	2.4	1.4	1.6	9.7	1.9	18.9
합 계	27.1	27.1	10.6	13.0	38.8	31.2	147.9

* 기타 : 중소 취급업소에 송금한 경우

붙임2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

1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 사기범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 후,
- 해당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이를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

⇒ 동 수법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경유하여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 최근 회원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등록해야 하는 취급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은 대포통장 및 취급업소 계좌를 사전 확보*하고

* ① 대가를 지급하고 통장 및 취급업소 계좌를 양도·대여 받거나 혹은

② 대출 실행(금융회사 사칭), 아르바이트 제공(고용주 사칭) 등을 빙자하여 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확보

-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한 후 이를 다시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 대포통장을 확보한 사기범이 직접 송금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하여금 송금토록 유도

- 가상통화를 사기범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

가상통화를 악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

